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몬(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지혜서 4,7-15
 [화답송] 시편 23(22),1-3.4.5.6(◎ 1 또는 4~7~8)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를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독서] 로마서 6,3-9 또는 6,3-4.8-9

[복음 환호송] 필리 3,2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마태 25,1-13

성가	8시 미사	입당 228	봉헌 423 27	성체 175 499	파견 462
	11시 미사	입당 228	봉헌 423 27	성체 175 499	파견 462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31주일(11월 2일)		연중 제32주일(11월 9일)		연중 제33주일/평신도주일(11월 16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안토니오(휘)	조레지나(선덕)	이바로로(명국)	황테레사(혜정)	임루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이바로로(명국)	최다니엘(대연)	강요한(신호)	허라우렌시오(순구)	최베네딕토(환준)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이골롬바(정연)	김안젤라(영선)	문골롬바(지영)	최베네딕타(수영)	심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위령의 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5, 5)

눈물의 그늘진 골짜기를 걷어가는 우리에게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낯선 대상이다. 신앙은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는 문이라고 가르치지만, 가능한 죽음에 관한 불편한 기억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하지만 한 사회가 과거에 대한 기억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한 인간은 부모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잊고서 살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절망의 표지였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랑의 기억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며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이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억하는 행위 때문이었다.

죽음 속에 이미 부활이란 새 생명이 움트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준 이 새로운 빛이 야말로 현세에서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온갖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줄 희망의 근거이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시편 27, 1)

교회가 전통적으로 모든 성인의 대축일을 보내고 난 후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두 전례는 공통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경계를 넘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갖도록 초대한다. 곧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지상의 삶은 다가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순례의 여정과도 같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성인들을 비롯한 천상의 존재들과 우리가 ‘희망’의 끈으로 깊이 결합되어 있는 만큼 이 땅에서 온갖 형태의 결핍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더욱 기

도에 매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우리가 바치는 간절한 기도는 진정 누군가에게, 특히 죽음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지칠 줄 모르는 희망의 선포자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희망을 간절히 목말라하는 사람들, 특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비롯하여 사회의 무관심 속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의 두 손을 모아야 할 것이다.

“주님, 당신은 자애로우시니, 당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김기태 사도요한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잘 죽어 볼까요?

천주교 신자들의 모순이 크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지만, 정작 하느님을 향한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얼마만큼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①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만나는 것도 귀찮아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미사) ②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천 원을 쓰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헌금)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실 분, 손드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가고 싶지 않고 나중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바로 가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것일까요?

병원 사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기쁨과 슬픔도 하나이고, 행복과 불행도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삶, 밝음, 기쁨, 행복, 쾌락)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와 반대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죽음, 어둠, 슬픔, 불행, 고통)에 대해서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한쪽 면만을 가질 수 없듯이 삶과 죽음도 하나이고, 기쁨과 슬픔도, 행복과 불행도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삶을 잘 살아가는 것과 더 불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 주셨듯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주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잘 죽을 준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면 죽음의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빛 속에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위령의 날을 맞이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죽음의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분들이 하느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형 신부
일반병원사목위원회
삼성서울병원 원목사제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글_로마 13,8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순례자의 영성

말씀의 향기

저무는 11월에 한 장 낙엽이 바람에 업혀가듯
 그렇게 조용히 떠나가게 하소서
 한 점 흰 구름 하늘에 실려가듯
 그렇게 조용히 당신을 향해 흘러가게 하소서
 ... 죽은 이를 땅에 묻고 와서도 / 노래할 수 있는 계절
 차가운 두 손으로 촛불을 켜게 하소서
 해 저문 가을 들녘에 / 말없이 누워있는 벚단처럼
 죽어서야 다시 사는 영원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소서
 - 이해인의 시 <순례자의 기도>

세상 떠난 이들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위령의 달, 위령의 날을 나는 좋아합니다. 우리 수녀님들이나 친지들이 긴 잠을 자고 있는 무덤가에 서면 마음이 절로 차분하고 온유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떠난 분들에 대한 그리움에 잠시 슬퍼지다가도 그들이 보내오는 무언의 메시지에 정신이 번쩍 들곤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만 해도 여러 명의 수녀님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분은 매장을 하고, 어떤 분은 화장을 해서 수녀원 묘지에 모셔옵니다.

비록 육신은 떠났으나 그들이 너무도 생생히 꿈에 보이거나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기도 속에 떠오를 때면, 허무를 넘어선 사랑의 현존으로 행복을 맛보기도 합니다.

오래전 수도공동체의 수련장이었던 노수녀님을 동료 수녀와 같이 간병하러가서 환자 수녀님과 성가도 부르고 배도 깎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날 새벽 수녀님은 갑자기 살짝 주무시듯이 고요하게 선종하셨습니다.

지켜보던 우리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동료 수녀는 떠나는 수녀님을 “아주 가시는 건가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말이 어찌나 간절하고 인상적이던지!

잠시 출장을 가거나 지상 소임을 마치고 저쪽 세상으로 이사 가는 이에게 건네는 이별 인사로 여겨져서 슬픔 중에도 빙긋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떠나가서 친숙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가보지 않은 세상이기에 두렵고 낯설기도 한 죽음

을 깊이 묵상하는 11월, 우리는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가벼움과 자유로움으로 순례자의 영성을 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직은 오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잠시라도 묵상하는 것은 오늘의 삶을 더 충실하게 가꾸는 촉매제가 되어줍니다.

‘잠자는 이들과 죽은 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서로 같은 지!’ 라고 한 <길가메시 서사시>의 한 구절을 새겨봅니다.

“주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매일 외우는 끝기도의 마무리 구절을 묵상해 봅니다. 삶의 여정에서 자존심 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적마다 언젠가는 들어갈 ‘상상 속의 관’ 속에 잠깐 미리 들어가 보는 것, 용서와 화해가 어려울 적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순례자의 영성을 살아야겠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작은 죽음을 잘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떠나는 큰 죽음도 잘 맞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해인 수녀 시인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제1588호 연중 제31주일 2014년 11월 2일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테살로니카 교회는 바오로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도 있었지만 테살로니카교회의 대다수는 이방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사도 17, 1-15; 1테살1,9)

박해 때문에 테살로니카 교회가 채 자리 잡기도 전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오로 사도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테살로니카 교회 신자들이 유대인들의 반대와 이교인들의 부패에 맞서 하느님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테살로니카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티모테오에게서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몹시 기뻐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테살 3, 1-13)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라고 격려합니다. (1테살4, 1-12) 이어서 사도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을 괴롭히던 두 문제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형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오로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먼저 죽은 이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먼저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다음으로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은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은 이들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1테살 4, 13-18)

그다음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1테살 5, 1-11) 사도는 ‘그날이 언제다’ 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

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도둑처럼 닥칠 주님의 날을 대비해서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테살 5, 11)라는 말이 사도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이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 5, 16-18)

송해경 박사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성 쟁야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11월 2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박대건안드레아(월년)	박세레나(동신)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양마리아(석순)	남수산나(금지)
	연 황데레사(미대자)	가족
	연 신안토니오(영민)	이마리아미카엘라
	연 신안토니오(영민)	10구역
	연 박베드로/마리아	박데레사
	연 정요한금구	정요한
	연 서데레사/정요셉	정베드로
	연 박마리아/전대석	전데레사
	연 이베드로(영남)	구미카엘
	연 모든연령들을위하여	은총의어머니Pr.
	연 모든연령들을위하여	사랑하올어머니Pr.
	연 모든연령들을위하여	김케네스(관용)
	연 모든불쌍한영혼들	임루시아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조상님	임루시아
	연 부모님	김베드로(경년)
	연 박수경/홍정희	박데레사
	생 본당신부님	전데레사
	생 실비아생일	박데레사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관용)
11월 4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김요한/홍모니카	정분다
	연 지세실리아(연주)	영파트리샤
	생 육마이클(창우)	육아가다
11월 6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생 송베로니카	박세레나
	생 이정우	전수산나
11월 8일 토	연 권요한/서아가다	김카타리나
	연 영말가리다(명선)	홍세실리아
	생 조리디아(미경)	익명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70	206	20	296
헌 금	\$399	\$1,188.05	\$46	\$1,633.05

< 교무금 > \$4,245

윤성일(1-10) 김영순(8-10) 정창희(10) 이정연(11)
 김원덕(9-10) 이재우(7-10) 임승원(9-10)
 이영기(9-10) 서춘애(10) 명광식(5-12) 김영자(10)
 허은석(9-10) 허순구(9-10) 신현규(5-12/14, 1-4/15)
 신우현(9-10) 최응일(9-10) 이성재(9-10) 김영희(11)
 박호영(11) 정진희(11)

< 성소후원금 > \$70

정창희(10) 허은석(9-10) 정진희(11) 박호영(11)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오늘은 알라메다 구역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가톨릭교회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위령의 날(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달에는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지내도록 합시다.

◆ 오늘 위령의 날을 맞아 미사 중 죽음에 관한 영상물 상영이 있습니다.(제목 : 블루베일의 시간)

◆ 성시간 : 11월 6일(목) 저녁미사 7시 반

◆ 환자봉성체 : 11월 7일(금) 아침미사 후

◆ 지속적인 성체조배  
11월 7일(금) 저녁 9시 ~ 11월 8일(토) 아침 7시

◆ 대림절 성경 쓰기 : 요한복음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사목회의 : 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사진동호회 : 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재정위원회의 : 오늘 교중미사 후 성당입구 회의실

◆ Brown Bag 식료품 무료배급 신청  
식료품 무료배급을 11월부터 매월 첫째와 세번째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지난 토요일(1일)에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교중미사 후 성당 정문 앞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 510-580-7880

◆ 대건산악회 송년 특별산행 및 해변 걷기

일시 : 11월 4일(화) 아침 8시까지 성당 주차장 집합  
장소 : Stinson Beach Trails 와 해변  
행사 : 산행/해변 걷기, BBQ 점심제공, 오락/장기자랑  
참가비 : \$10, 문의 : 510-847-3014

◆ 법륜 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일시 : 11월 10일(월) 오후 7시  
장소 : 오uckland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 11월 10일 ~ 2015년 2월 6일  
문의 : <http://ci.catholic.ac.kr>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 참고하시거나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요아킴회에서 본당 30주년 기념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남은 \$400을 성모회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즈카르야(11/5) : 한재구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30분

**안국학교 소식**

- 11월 8일 : SAT II 한국어 시험